

조계종 173회 임시중앙총회 주목되는 안건은?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 '관심사'

중정 법전 스님 강한 의지 반영될 듯...승려법 개정안도 발의

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총회가 3월 26일 개원했다.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는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 승려 재산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헌·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조계종 제12대 중정으로 재추대된 법전 스님(왼쪽에서 세번째)이 3월 21일 합천 해인사에서 종단 지도자 스님들의 예방을 받고 퇴실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 개정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다. 총무원장 발의로 상정된 이 개정안은 종헌에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내용은 제162회 임시중앙총회 때 상정된 것과 유사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1994년까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사면·경감된 자는 사면·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중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사면·경감조치가 이뤄지면 부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종헌 개정안과 연동해 사면·경감 조치를 받은 자는 복직 또는 재직도 할 수 있도록 승려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은 3월 21일 종단 지도급 스님

들의 중정 재추대 수락요청과 하례를 받은 자리에서 "대중화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사면도 대중화합에 도움 된다면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중정예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중정예하께서 재추대되면서 종단 화합 측면에서 첫 관심사로 사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헌 개정안이 중앙총회를 통과하려면 중앙총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 집행부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사면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를 비회 불 때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사유재산 종단 귀속 법안
이번 총회에서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 중앙총회의원 법전 스님 외 4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승려법 제30조 2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뼈대를 살펴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또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려는 구축계를 수계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 매5년마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과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나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조선의원들이 발의한 '징계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종법 개정안'도 주목할 부분.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징계 효과를 내기 위해 징계를 내릴 때 변상을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형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징계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승려법, 총무원법, 회계원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말사주지를 제외한 주요 종헌 기구 총무원의 직위는 상호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총무원법 개정안'도 의미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개약'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총무원법 개정안'과 '사패산 터널 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계종 중생 수행관 백상원(비구 수행관)과 해광사(비구 수행관)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5월 20일 전국서 연등물결

봉축행사 준비 돌입, 전통등 전시·연등놀이 등 다채

꽃 모양이 부처님 머리처럼 곱슬 곱슬해 붙여진 이름 불두화. 부처님 오신날 앞뒤로 반발하는 불두화가 서서히 가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손길도 점점 바빠진다.

불기 2551년 연등축제의 서막은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가 연다. 전시회에서 한지의 은은함과 단청의 화려함이 전통의 향기를 맡게 선보인다.

19일 오후 7시부터 인사동과 조계사 앞거리에서 열리는 '연등놀이'는 연등축제 전야제. 연희단의

아름다운 행렬과 흥겨운 공연이 인사동 일대를 환희심으로 가득 채운다.

연등축제 당일인 20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계사 앞거리에는 전통문화의 장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진다. 연등만들기, 사찰음식, 탁본, 영산재 등 다양한 체험과 화려한 불거리,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불교문화와 전통의 전래놀이가 진행 된다.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 운동장에서는 흥겨운 화합의 장 '어울림마당'이 열린다. 화려한 의상의 연희단과 운동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

들이 함께 웃고 어우러지며 제등행렬을 준비한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제등행렬'은 오후 7시부터 동대문-종로-조계사로 이어진다. 용동, 탑동, 원교끼리동, 봉황동, 연꽃동 등 10만여 개의 등불등과 수백여개의 커다란 장엄등이 감동을 주며 등의 바다를 펼친다.

연등축제의 피날레는 오후 9시 30분부터 종각사거리에서 펼쳐지는 '대동한마당'이 장식한다. 꽃비 속에 있을 수 없는 연등축제의 감동을 함께 나누며 하나 되는 자리다.

남동우 기자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진산법회

30일 대웅전서 봉행

순천 선암사 제27세 주지 설운 스님(사진) 진산법회가 3월 30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스님은 2월 13일 선암사 적묵당에서 열린 재적승 총회(전산대회)에서 총 169명중 107명이 투표한 가운데 60표를 얻어 제27세 주지에 당선됐다.

설운 스님은 "종단과의 관계를 원할히 하고 중도들에게 문호를 개방 하겠다"며 "신도화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묵담(성우) 율사로부처 보살계 및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88년부터 태고종 중앙총회의원, 1989년 태고종 사회부장, 2002년 경기북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설운 스님은 1955년 7월 선암사에서 회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선암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1973년 국

립후보 자격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3급 이상의 스님으로서 제23교구(관음사교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이력서, 사진 등을 첨부해 도남 보현사에서 (064-722-2829)로 접수하면 된다.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거주승 신고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14일부터 16일까지.

김원우 기자

관음사 산중총회 내달 20일

제주 관음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4월 20일 오후 2시 관음사포교당 도남 보현사에서 열린다.

입후보 자격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3급 이상의 스님으로서 제23교구(관음사교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이력서, 사진 등을 첨부해 도남 보현사에서 (064-722-2829)로 접수하면 된다.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거주승 신고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14일부터 16일까지.

남동우 기자

독자와 함께 만드는 현대불교

본지 독자위원회 구성...지면 개선·기획 제안 등 '열린 편집국' 지향

현대불교신문이 제작의 중심을 독자에게로 이동합니다. 편집국 중심의 제작 관행을 버리고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편집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독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독자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가독성 높은 지면구성은 물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임무: 기사에 대한 평가, 기획물 및 연재물 건의, 잘못된 단어사용이나 오타지 지적, 지면개선 및 현대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 개진 등.

■ 처우: 의견서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분사 간행 도서 제공 등.

■ 신청서류: -자기소개서 1부 - '현대불교를 읽고' 의견서(200자 A4용지 1매 내외) 1부

■ 모집기간: 2007년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www.kim000@naver.com

■ 발표: 2007년 4월 2일 불타뉴스 홈페이지

■ 공모분야: 현대불교 독자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10명

■ 응모자격: 현대불교신문 3년 이상 구독 독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호남지사: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043)732-5580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천태종 '괴문서' 관련자 고발조치

천태종은 3월 21일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관련 있는 괴문서 배포 관련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씨를 고발조치했다.

천태종 총무부장 문덕, 사회부장 무원, 교무국장 월도 스님은 이날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우편으로 각 사찰에 배달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2월 27일 김

모씨가 이조은뉴스라는 인터넷신문에 글을 올렸다"며 "괴문서 관련자를 발본색원하고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5건의 괴문서는 총무원장의 가족문제와 공공유용 의혹, 종단이 출자해 건립한 건립사를 통한 비자금조성 의혹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 가르침 환히 밝혀져 온누리에 펼쳐지이다
국운이 융창하여 남북통일 이루어지이다

국운융창 · 남북통일 · 법륜상전

2007호국팔만대장경대법회

불기 2551(2007)년 4월 14일(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10:00-10:30 문화행사 | 10:30-12: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12:00-13:00 공양, 문화행사 | 13:00-14:00 총무원장스님 법어
14:00-16:00 호국팔만 대행진



法寶宗利海印寺 문의 055)934-3105, 3106